

수박해충 목화바둑명나방의 방제적기 구명

최동철, 노재종

고창수박시험장

목화바둑명나방은 6월 하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수박의 잎과 과실에 피해를 주는데, 특히 과피 표면을 가해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리며, 억제재배시 피해과율이 60~65%에 이르고 방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식물체가 고사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

본 실험은 7월 상순에 파종하여 10월 중순에 수확하는 억제작형에서 실시하였고, 시험약제로는 fipronil SC를 사용하였으며, 8월 하순 ~10월 상순까지 매 순별로 경영 살포하여 피해엽률과 피해과율을 조사하였다.

처리시기별 유충수는 약제를 처리한 후 1주일째가 가장 적었으며, 대체로 약제처리 2주후부터 밀도가 회복되는 경향이였다. 9월 중순이후 처리한 구에서는 밀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는 온도의 영향으로 생각되며, 처리시기별 피해엽률은 9월 상순 처리구에서 가장 적었고 10월 15일 조사시 8월 하순 처리구는 10월 상순 처리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방제효과가 거의 없었다. 피해과율 및 과피해 정도, 고사주율은 모두 9월 상순 처리구에서 가장 낮았다.